

□ 2026년 형제회 목표

“형제들이여, 주 하느님을 섬기기 시작합시다”

(첼라노 1생애, 103)



재속프란치스코 의정부지구

루케치오

2026년 06월호

제 123 호

발행일 : 2026년 6월 20일 (토)

영 보 : 권웅용 라자로 OFM

발행인 : 전명희 카타리나 OFS

편집인 : 이봉신 바오로 OFS

Ⓜ12142

남양주시 늘을1로 73번길 27

(호평동성당)

성 프란치스코의 찬미송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송하며 찬양하나이다.

6월 월례회 시간표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9:40~10:00	시작기도, 공지사항(중신서약식)	12:10~12:30	고백성사(고해소)
10:00~11:20	반별양성(지원반, 입회1, 입회2, 유기사약, 종신)	12:30~13:20	미사(대성전)
11:20~11:50	전체양성	13:20~13:30	마침기도
11:50~12:10	낮기도(성무일도)	13:30~14:00	청소 및 뒷정리

[(녹) 연중 제12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당성가 : 발자취 16번 (주하느님 크시도다) • 제 1독서 : 예레미야서 20,10-13 • 화답송 : ◎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 제 2독서 : 로마서 5,12-15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 • 복 음 : 마태오 10,26-33 • 영성체송 :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 봉헌성가 : 발자취 35번 (새로운 계명) • 성체성가 : 발자취 42번 (천사의 양식) • 파견성가 : 발자취 71번 (열렬하신 주의사랑)
---	---

미사해설	이경옥 요안나	☺☺☺ 6월 축일을 맞이하신 회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이용만안토니오(6/13), 이명자엘리사벳(6/18) 김영단율리안나(6/19), 임석순율리안나(6/19) 김남순마리나(6/28), 이봉신바오로(6/29) 이창운베드로(6/29), 황영순바오로(6/29) 최중을베드로(6/29)
독 서	이정옥 글로리아 문해순 데레사	
반주자	변정숙 수산나	
성 작	김문경 레온시아 라태랑 클라라	
6월 봉사구역	호평1구역, 금곡구역	
7월 봉사구역	호평2구역, 호평3구역	

활동보고

※ 월례회 및 구역모임에 꼭 참석 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 회원 : 월례회 2회, 구역모임 3회 결석)

■ 평의원 활동보고 (공동)

- 평의회 회의- 05.09(토) 8명 참석
- 신설 금곡구역 첫 구역모임 방문- 05.09(토)
영보님, 봉사자, 서기 (With 마석2/호평4구역장)
- 구역모임 참석- 각 구역별 모임
봉사자, 부봉사자, 서기, 회계, 양성, 구역, 정평
- 월례회(유기서약식)- 05.16(토) 9명 참석
- 종신서약 청원자 면담- 05.16(토) 호평동성당 친절방
영보님, 봉사자, 양성
- 종신회원 재교육- 05.24(일) 정동교육회관 4층 410호
서기 (With 종신재교육 회원)
- 종신 청원자 합동 피정- 05.30(토) 한남동 콘벤투알
봉사자, 서기, 양성, 구역, 선교 (With 지구 구역담당)

■ 서기 보고 (5월)

반 구분	지원반	입회 1반	입회 2반	유기 서약 반	활동 회원	계	특별배려 + 잠정				총 계	
							환 자	고 령	기 타	잠 정		
전월	7	7	4	8	66	92	9	0	8	0	17	109
변동												
당월	7	7	4	8	66	92	9	0	8	0	17	109

- 참조사항 : 유기서약반에 종신청원자 포함

※ 문서 수신 및 발신

항 목	날짜	내용
수 신	2026.05.29	2026년 상반기 연석회의 공문
	2026.06.04	2026년 10월 제주4.3-강정마을 제형 참가 협조요청
	2026.06.07	2026- 5월 의정부지구 평의회 회의록
	2026.06.07	2026-5월 국가평의회 전달 및 결정사항
발 신	2026.05.09	2026 4월 루케치오형제회 평의회 회의록

■ 양성 보고 (5월)

구 분	양성교사	장 소	출 석	월례회 출석률
지원반	김연숙 소화데레사	지하 7번 절제방	7/7	100%
입회1반	김선덕 글라라	지하 3번 평화방	6/7	85.7%
입회2반	유현자 카타리나	지하 4번 인내방	4/4	100%
유기서약 (26년)	유정숙 미카엘라	지하 5번 친절방	4/4	100%
종신 청원자	신미자 리오바	지하 큰모임방	4/4	100%
영속적 양성	권응용 라자로 OFM	지하 큰모임방	56/66	84.3%

■ 구역보고 (5월)

구역	구역장	구역모임	참석/대상
마석1	심은주 스텔라	둘째 주 토요일 19시 마석성당 교육관	9/9
마석2	안외숙 루시아	둘째 주 일요일 16시 마석성당 교육관	7/9
창현	최경숙 에스텔	둘째 주 일요일 10시 창현성당 교육관	12/14
수동1	장한영 베드로가니시오	셋째 주 토요일 15시 수동성당 믿음방	5/9
수동2	김성윤 모니카	셋째 주 토요일 15시 수동성당 소망방	8/9
호평1	김민화 아나스타시아	셋째 주 금요일 낮 미사후 지하 인내방	6/7
호평2	정계숙 글라라	둘째 주 일요일 10시 호평동성당 인내방	11/13
호평3	김순옥 루시아	셋째 주 목요일 11시 호평동성당 평화방	8/9
호평4	장경숙 아네스	둘째 주 일요일 10시 호평동성당 친절방	8/8
금곡	박화자 헬레나	둘째 주 토요일 16시 금곡동성당	5/5
구역 담당	이옥주 안젤라	둘째 주 토요일 14시 호평동성당 사랑방	79/92 86%

■ 회계 보고 (5월)

수입	계정과목	지출
1,355,000	회비	
0	교육연수비	
0	후원금	
590,000	미사헌금	
0	도서성물	
560,000	찬조금	
0	잡수입	
	의무금	190,000
	미사예물	0
	영적보조비	200,000
	교육연수비	0
	회의비	369,730
	행사비	0
	부서활동비	0
	관리비	150,000
	경조비	0
	후원금	130,300
	도서성물	88,000
	인쇄비	68,000
	여비(교통비)	0
	비품비	0
	예비비(잡비)	0
2,505,000	계	1,196,030
6,745,280	전월/차기이월	8,054,250
9,250,280	총 계	9,250,280

국민 : 815637-04-006200 (의정부 루케치오)
예금주 - 재단법인 재속프란치스코회

정평창보 보고 (5월)

- 5월 두부판매 355,000원, 5월 이익금 40,000원
- 적립금누계 329,000원

공지 사항

종신서약식

- ♥♥♥ 종신서약식 하시는 양성회원 여러분을 모든 회원과 함께 축하합니다. ♥♥♥
- 일시 : 06.20(토) 월례회 미사 中
- 장소 : 호평동성당 대성전
- 대상자 : 김성윤 모니카, 이미숙 안나, 이복레 수산나, 고경숙 율리아 등 4명

2026년 의정부지구 연석회의

- 일시 : 06.27(토) 10:00 ~ 15:00
- 장소 : 안젤라회관
- 준비물 : 지침서, 형제회 명찰, 필기도구, 개인 컵

2026년 종신회원 재교육

- 일 시 : 04.26.(일), 05.24.(일), 06.28.(일) 10:00~12:00
- 장 소 : 정동교육회관 212호
- 대 상 : 김남순 마리아, 박향숙 글라라, 김순옥 루시아, 김미선 마르셀라, 이지영 율리아, 함현희 비비안나, 김기철 프란치스코, 이상미 안나, 고해숙 모데스타, 김정애 다시안나, 장경숙 아네스, 전나진 율리엠타, 이봉신 바오로, 유정숙 미카엘라, 서정란 크리스티나, 윤을현 미첼, 김순례 라우렌시아 (17명)
- 강 사 : 이현주 카타리나 전임 국가봉사자

루케치오형제회 숲 회원 의무피정 (1박2일)

- 일 시 : 07.18(토) 14:30 ~ 07.19(일) 14:00
- 장 소 : 파주 예수마음 배움터
- 준비물 : 지침서, 칠락목주, 미사준비, 형제회 명찰, 형제회 스카프, 성경, 필기도구, 세면도구, 개인 컵, 슬리퍼(실내화) 등
- 피정분담금 : 인당 3만원

의정부지구형제회 평의원 변동사항

- 구역담당 이인숙 엘리사벳 개인사정으로 사임
- 선교담당(신미숙 마틸다) → 구역담당 직책이동
- 서기담당(이영주 보나) → 선교담당 직책이동
- 서기담당 : 루케치오형제회 김연숙 소화데레사 선임
- 정평담당 : 다미아노형제회 정승훈 베드로 선임

은경축 행사 실시

- ♥ 서약 25주년을 맞이하신 노봉숙 비비안나 회원의 은경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 7월 월례회 미사中 은경축 행사가 있습니다.

교황님의 2026년 6월 기도지향

- ✧ 스포츠의 가치 ✧
- 스포츠가 문화 간, 국가 간 평화와 만남과 대화의 도구가 되고, 존중과 연대와 인격 성숙과 같은 가치들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OFS-유프라 지향

-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벨기에, 스위스 국가형제회를 위하여

OFS 성소를 위한 기도

- 성소의 위기를 겪는 OFS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형제회 기도 지향

- ① 루케치오 형제회 회원들의 성화를 위해서,
- ② 사제들과 수도자를 위해서,
- ③ 선종 회원과 연옥 영혼 구원을 위해서,
- ④ 특별배려회원을 위해서,
- ⑤ 김선숙 카타리나, 류현숙 로사, 서순덕 베로니카, 김부덕 로사리아, 이인숙 아가다를 위해서,
- ⑥ 권경희 안젤라 자녀 이정주 루치아, 최경미 소화데레사 장부 박광준 베드로를 위해서

종신서약을 맞이하며..

-- 김성윤 모니카 --

- 종신 서약이라는 거룩한 무게감 앞에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지나온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원했기에 이 자리에 섰으며, 저는 이것이 분명 주님의 부르심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삶은 다음 두 가지를 항상 되새기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칭찬과 높임을 받으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며, 아부하는 사람의 말에 기대는 것은 스스로의 눈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참된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바라볼 줄 아는 용기입니다. "그대는 하느님이 행하신 선을 생각하면 머리를 숙여야 하고, 또한 그대가 범한 죄를 생각한다면 온몸을 굽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만족을 찾지 않고 오직 하느님만 바라보는 것,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고요한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시는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늘 은총을 청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끝으로, 양성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마음 잊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화살기도 드리겠습니다."

-- 이미숙 안나 --

- 주님의 은총 속에서 종신 서약을 준비하며, 제 삶을 이끌어 주신 하느님의 섭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프란치스코인으로 살아가며 영적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거친 세상의 유희와 불안함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복음을 삶 한가운데서 기쁘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의 잣대가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아가 스스로를 낮추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우선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고, 허물을 덮어주며 다 함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저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맏언니로서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긴 시간 동안 기꺼이 자랑 봉사로 수고해 주신 이복례 수산나 언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압니다. 앞으로도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작은 도구가 되어, 묵묵히 그리고 충실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 이복례 수산나 --

- 처음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문을 두드릴 때, 제 안에는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4년의 시간을 거치며 제 삶을 찬찬히 돌아보게 되었고, 보잘 것 없는 아주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의 부족함에 흔들리고 힘든 순간도 있었으나,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시간 역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프란치스코안으로서 조금이나마 더 겸손하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신 서약은 결코 완성의 순간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남은 생애를 복음 안에서 더욱 충실히 살아가겠다는 주님 앞에서의 새로운 다짐입니다. 앞으로도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을 따라 겸손과 사랑을 실천 하며, 소박한 일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맑은 향기를 전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공동체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 고경숙 울리아 --

- 저에게 중신 서약은 단 한 번의 굳은 약속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응답하고 살아내야 하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프란치스코안으로서 저는 '삶에서 복음으로, 복음에서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려 합니다.

매일 주어지는 일상 속에서 제 삶의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 제 마음 한편에 자리한 욕심, 그리고 쉽게 남을 판단해 버리는 연약한 모습을 마주할 때면 스스로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의 시간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를 깊이 묵상하며, 있는 그대로의 저를 주님 손에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복음 안에서 얻은 은총의 깨달음을 다시 제 삶 속에서 온기로 피워 내고자 합니다.

저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타인을 먼저 이해하려는 수고로움,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깊이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중신 서약이란, 이렇듯 끊임없는 성찰과 실천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맡겨 드립니다.

■ 놀노리 수도원 된장가르기



■ 2026년 유기서약식



■ 중신서약 청원자 합동피정



◆◆ 후원 회원님 감사드립니다.

• 2026년 중신서약 대상자들께서 월례회 떡을 찬조하였습니다.

◆◆ 다음 월례회는 2026년 07월 18일~19일 1박2일 형제회 의무피정입니다. ◆◆